

광주도시공사 부채 1122억·전남개발공사 301억 감소

부채비율 각각 147%·118%로 낮춰 재무구조 크게 개선 행자부 발표 ... 지난해 지방공기업 총 부채 72조2000억

지난해 결산결과 광주도시공사와 전남개발공사의 부채가 각각 1122억원, 301억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구조조정 압력과 자체 재무구조 개선 결과다. 전남개발공사는 땅갈호텔 등 적자 관광사업장의 매각에 연이어 실패하면서 부채를 더 줄이지 못했다.

행정자치부는 13일 “2015년 지방공기업 총 부채가 72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4000억원이 줄어 2년 연속 감소했

다”고 밝혔다. 전체 공기업의 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5.5% 포인트 감소한 65.2%로 2008년 이후 7년 만에 60%대를 보였다.

부채규모 1000억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 200% 이상인 부채중점관리기관에 포함된 광주도시공사와 전남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은 각각 147.0%, 118.1%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195.8%, 125.6%에 비해 각각 48.8% 포인트, 7.5%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전체 부채중점관리기관(26개)의 부채는 47조7000억원(부채비율 136.9%)으로 전년 대비 2조2000억원이 줄었다.

경영손실 9084억원의 상·하수도의 1조4145억원 적자, 7538억원에서 2925억원으로 감소한 공영개발 수익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됐다. 지방공사·공단은 1992년 손익집계 이후 처음으로 흑자로 전환해 전년 대비 4435억원의 수익이 증가했다. 공기업 손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하수도의 손실액이 11년만에 감소세로 돌아섰고, 상수도에서도 60억원의 손실이 감소해 소폭이나마 경영개선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행정자치부의 판단이다.

도시개발공사 부채는 40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6000억원이 감소했다. 흑자 규모는 7587억원으로 전년 대비 1256억원(19.9%)이 증가했다. 도시철도공사의 부채는 전년 수준인 5조9000억원으로, 7949억원의 경영손실이 발생했다. 지난해 운임인상의 영향으로 적자 폭은 다소 줄었으나, 여전히 낮은 요금현실화율과 지속 증가하는 무임승차 손실 등 구조적 요인으로 손실이 지속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부채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중점관리기관의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120%까지 낮출 방침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등 선거 관리 공정·투명화 전남도-도선관위 업무협약

전남도와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손을 잡고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임원선거의 부패방지 및 공명한 선거관리를 지원한다.

13일 전남도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전남도청사 대회의실에서 서인덕 전남도선관위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 선거관리 공정·투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공익적 참여를 통해 공동주택 주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도선관위는 아파트 동별 대표자, 임원 선출 등에 대한 위탁선거관리 시 인력 및 온라인투표 등을 지원하고 전남도는 온라인투표 서비스(K-Voting)의 활용을 유도해 공동주택 선거관리의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온라인투표 서비스 활용을 희망하는 도내 공동주택은 관할 선관위에 이용신청을 접수해 승인 후 온라인투표 서비스를 활용한 전자투표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온라인투표서비스는 중앙선관위가 지난 2013년부터 공공기관·단체의 임원선출, 정관개정, 정책결정 등에 온라인을 통한 투표관리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투표율은 기존 10~20%에서 60%까지 올랐다. 지난 2013년 10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광주·전남지역 지원건수는 모두 49건이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공동주택 임원선거 공정하게”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대회의실에서 전남도와 공동주택 임원선거 등의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전남도선관위와 전남도는 공동주택 임원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거 등에 온라인투표 서비스(K-Voting) 활용과 체계적인 선거관리 지원을 약속했다. <전남도 선관위 제공>

롯데마트 월드컵점 불법전대 환수 규모 130억

광주시, 불법행위 제재 수위 밝혀

무단 재임대 매장 90% 원상회복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롯데쇼핑(주) 광주월드컵점 불법전대(轉貸·재임대)와 관련해 환수할 수익금 규모가 최대 130억원이 될 전망이다. 광주시가 롯데 측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광주시의회는 13일 롯데쇼핑의 부당 수익에 따른 환수 금액을 계약기간이 끝나 오는 2026년까지 연간 10억원씩, 110억원으로 잠정 결론을 냈다는 보고를 시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또 “광주시가 롯데 측에 추가로 20억원을 요구한 상태며, 협상에 진전이 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부 시의원은 시의 방침을 전제로 롯데 측과 재계약에 준하는 계약을 하도록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롯데 측이 재임대 구역에 벗어난 장소를 무단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금까지 192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집계했다. 이 가운데 대부료 기납부액 등 105억원을 제외한 87억원을 부당 수익금으로 보고 있다. 롯데 측이 이 부당 수익금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방식으로 내는 것이다.

대부로 산정방식 변경은 롯데 측의 반대로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났다.

현행대로 연간 48억5000만원을 받는다는 의미다. 여기에 롯데 측이 10억원을 더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주차장 사용료 재

협상은 없으며 현행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무단 재임대 매장은 전체 4259㎡ 중 90% 정도가 원상회복됐으며 내년 2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롯데와의 계약해지 불가능한 행자부의 유권해석도 한몫했다. 행정자치부는 광주시의 질의에 대해 “양자 간 협의로 맺어진 대부계약인 만큼 사회질서에 명백한 위반이 없는 한 상대가 동의하지 않으면 변경을 강요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롯데쇼핑은 2007년 1월 광주시와 월드컵경기장 부대시설 20년 장기 임대계약을 맺었다. 당시 계약서 상 재임대 가능 면적은 9289㎡지만 이보다 4000여㎡를 초과 재임대해 연간 70억원 가량의 수익을 올려 환수 여론이 일었다.

지방정가

김동찬 “광주시, 호남권 잡월드 유치 나서야”

광주시의회 김동찬(더민주·북구5) 부의장은 13일 “광주 미래먹거리를 위해 호남권 잡월드 유치를 광주시와 시교육청이 적극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김 부의장은 이날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에서 “정부의 호남권 잡월드 조성계획이 광주와 전남 순천의 유치 경쟁으로 이어졌다”며 “공통분모를 찾아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광주는 호남권 정치·경제·행정·교육·문화 중심지로 광주·전남혁신도시, 에너지밸리, 자동차발안에서 “정부의 호남권 잡월드 조성계획이 광주와 전남 순천의 유치 경쟁으로 이어졌다”며 “공통분모를 찾아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해야

주경남, 수영대회 성공위해 자매도시 성명 제안

주경남(더민주·서구4) 광주시의원은 13일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국제 자매도시 간 성명을 제안했다. 주 의원은 이날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대만 타이완, 미국 샌안토니오, 중국 광저우·창저, 인도네시아 메단, 일본 센다이 등 자매도시를 열거한 뒤 “공동성명이 홍보 효과 등을 높이는 데 작은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세계가 함께 하는 축제에 친구의 도움은 큰 힘이 되리라 믿는다”면서 “2015 하계 U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과 인도네시아 메단, 일본 센다이 등 자매도시를 열거한 뒤 “공동성명이 홍보 효과 등을 높이는 데 작은 원동력이 될 수 있다”며 ‘자매도시 공동성명’ 당위성을 설명했다.

김영남,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면직 취소 촉구

광주시의회는 13일 제24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 취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영남(더민주·서구3)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난 7일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결의안에서 “교육부는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의 직권면직 명령을 취소하고, 광주시교육청은 전교조의 전임 휴직을 인정하고 징계절차



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주시의회는 모든 국민의 노동3권 보장을 지지하며, 20대 국회는 상식과 국제적 기준에 맞게 교원노조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결의안은 광주시의회 명의로 청와대를 비롯한 국회, 교육부 등에 송부될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4조원대 광주시금고 누가 맡나

내달 조례 개정 9월 공모 절차

3개 은행 유치전 뛰어든 듯

광주시가 오는 9월 시금고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에 들어간다.

현재 복수 금고 체제로 운영되는 시금고는 연말 4년 계약이 완료된다.

광주시는 13일 다음 달 중으로 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9월경 공모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고 지정에 따른 평가항목과 배점 기준은 조례에 규정돼 있다.

금융기관 신용도, 안정성, 대출 및 예금금리,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업무 관

리능력, 지자체 협력사업 등이다.

100점 중 90점은 행자부가, 나머지 10점은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항목을 정해 평가한다.

광주시 시금고는 1969년부터 광주은행 독점체제로 운영됐다가 2012년 복수체제로 전환됐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일부를 관리할 제1금고로 광주은행을, 특별회계 일부를 관리할 제2금고로 KB국민은행이 선정됐다. 1금고는 2012년 기준 전체 예산 3조 5천629억 원 중 3조 4천776억 원, 2금고는 853억 원을 맡았다. 당시 입찰에는 광주은행, 국민은행, 농협이 경쟁했다. 올해도 이 은행이 유치전에 뛰어 들 것으로 알려졌다.

HNT 하나투어

이달의 추천 여행 도시! 호주 - 시드니 & 멜번

① 최대 10만원 교통비 지원

② 커플당 양모 이불 1채 증정(골드코스트 상품 한정)

[ALL포함] 사전 예약 할인 제공

클래식 시드니/골드코스트 6일

PAW400_1 2,640,000원~

현지지불 : 가이드+기사경비 포함/선택경비 있음

- ☑ 호텔 : 시드니/골드코스트 4성급
- 🕒 요일 : 매주 토/일/월
- ✈️ 항공 : 아시아나 항공(OZ)/대한항공(KE)
- 🎁 특전 : 사전예약 최대 커플당 50만원 할인 호수산 와인 1병 증정
- 🍷 특식 : 캠티크 디너 크루즈

[ALL포함] 카페투어+그레이트 오션 로드

클래식 시드니/멜번 6일, 7일

PAW405_C 2,420,000원~

현지지불 : 가이드+기사경비 포함/선택경비 있음

- ☑ 호텔 : 하나투어 시내 단독호텔 (4성급)
- 🕒 요일 : 매주 토/일/월
- ✈️ 항공 : 아시아나 항공(OZ)/대한항공(KE)
- 🎁 특전 : 사전예약 최대 커플당 40만원 할인 멜번 로맨틱 카페투어 포함
- 🍷 특식 : 고품격 선상 디너 [\$80상당]

프리미엄 로드샵 광주 총장점 (동구 불로동 96-7) 문의전화 062) 228-1199

TALK 프리미엄 로드샵 광주총장점

프리미엄 로드샵 광주총장점 친구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 친구 맺
- 우측 상단의 친구찾기 버튼
- ID검색에서 아이디 입력 또는 QR코드 스캔

■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여행자보험료, 관광진흥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임. ■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발원일, 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 [가이드경비]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불포함될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택경비] 현지에서 고가의 선착에 대한 자유롭게 선택관광에 참여가능하여 그에 따른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참여에 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부동산 시장이 여행업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여행사의 사전 통보를 받으십시오. ■ [관광사범자 등록번호] 제269004-1993-6 (종로구청)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8층 하나투어 ■ 최소 출발인원 10명 기준/ 휴일 2급호텔 이상 2인 1실/고통면 항공/버스/해리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고객청탁/불만접수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 영일 보증보험 22억 (1천만원 가입) *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상품과 상품가격에는 유류할증료와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습니다. 선택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anatour.com)를 참조해 주세요. 해외 여행 단계를 국가 지정 여행사 1) 여행 유망 2) 여행 자재 3) 필수 권고 4) 여행 금지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 www.HanaTour.com